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60명 노동자 목소리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6411의 목소리 지음

서울 구로와 강남을 잇는 '6411번' 버스는 청소년노동자 등 새벽다섯시반에 출근해야하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 버스는 우리 사회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노동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알린 고(故)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연설 이후 소의 된 노동계층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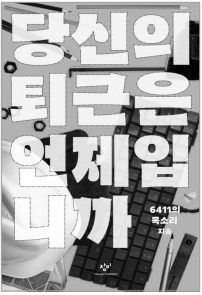
노회찬재단이 기획한 '6411 목소리' 프로젝트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을 조명하는 기획으로 청소년노동자, 돌봄노동자, 이주민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써내려가거나 구술한다.

75명의 목소리를 담은 첫 결과물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2024)에 이어 60명이 참여한 두번째 책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가 출간됐다.

'당사자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온 이야기는 "나의 각도로 말하면서 세상의 별을 되비추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문학보다 진실"하기에 독자들은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고, 혹은 알지만 모든 척했던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연결된 존재임을 느낀다. 더불어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가슴이 살균제 피해 유가족의 절규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1부 '증언하고 기록하다'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화재사고 노동자 유가족, 제화 노동자 등 각자가 겪은 슬픔과 고통을 딛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2부 '견디고 움직이다'에서는 노동현장의 부당함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 쿠팡 규탄 기자회견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사진은 쿠팡택배노동자 과로사 규탄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난다. 과로를 싣고 달려야만 하는 택배 노동자, 사과하고 일하고를 반복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계약서 없는 글쓰기가 일상이 된 만화 칼럼니스트, 재활용 선별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이다.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3부 '맞서고 고발하다'에는 이모나 여사님 대신 비정규직 중년 여성 노동자로서 정당한 이름을 찾고 싶어하는 호텔 메이드, 사과를 받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쿠팡 택배 사망노동자 유가족, 노숙인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거리로 나서는 홈리스 아웃리치 상담활동가 등의 이야기가 담겼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품에 안는 따뜻한 연대의 기록인 4부 '연결하고 돌보다'에서는 학교급식 노동자, 농·산문화예술활동가, 방문 점점원, 지역아동센터장, 도서관 사서, 대안학교 교사 등의 이야기를 만

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은 평소 핵심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말과 글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60명의 목소리 말미에는 60개의 '다시 듣는 노회찬의 목소리' 코너를 마련했다. 생전에 그가 남긴 글 중에 선별한 것으로 차별 없는 존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정치, 정의로운 연대를 꿈꿨던 그를 만날 수 있다.

책 말미의 2016년 5월 30일 국회 청소년노동자와의 오찬 간담회 인사말 '우리는 직장 동료입니다'는 인상적이다. 20대 국회의원이 된 후 그의 첫 공식 일정은 국회 청소년노동자와의 오찬이었고 그는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여러분과 같은 공간, 국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라며 "우리 정의당이 국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외로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비·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의 예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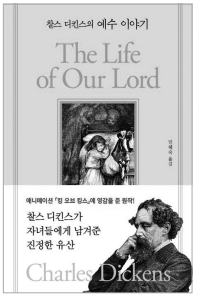
찰스 디킨스 지음, 민혜숙 옮김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등.

영국의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1812-1870)의 대표작들이다. 집안의 빚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든 그는 주경야독하며 꿈을 키웠다. 공장생활, 법률 사무소 직원, 기자 등 다양한 경험은 후일 작품을 쓰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를 비롯해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따뜻한 인간애가 특징이다. 인간 삶의 다채로운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해 세익스피어에 버금가는 명성을 누렸다.

최근 발간된 '찰스 디킨스의 예수 이야기'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쓴 글이 토대가 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직접 이야기를 썼는데, 85년간 가족의 비밀로 원고가 남겨져 있었다. 출간돼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디킨스의 원고는 사후 오랜 세월이 지난 1934년에야 빛을 볼 수 있었다. 8번째 아들 헨리 필딩 경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발간으로 이어졌다.

디킨스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야기 중심으로 예수님 생애를 재구성했다. 문장들은 자상하며 올바른 신앙을 전달하고자 하는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다. 그는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예수님이 어떤 분

이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상상할 수도 없겠다"고 말한다.

번역은 광주에서 목사인 남편과 교회를 개척해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민혜숙 목사(작가)가 맡았다. 연세대 불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전남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호남신학대에서 강의했다.

민 작가는 "책을 통해 세계적인 대문호였던 디킨스가 성경을 경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귀스타브 도레의 성경 삽화를 비롯해 디킨스의 기도문 등은 그의 신앙관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종교사회학자인 노치준 박사는 추천의 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한 이들이 읽으면 더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이르비·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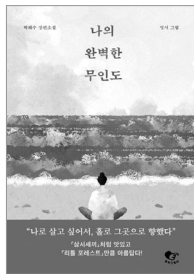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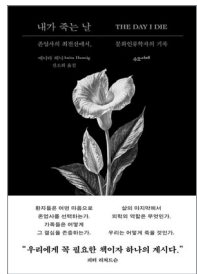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감정의 혼란**(슈테판 츠바이크 지음, 황종민 옮김)= '인간 영혼의 고고학자'로 불리는 츠바이크의 대표 중편 네 편을 묶은 소설집. '불타는 비밀', '아모크 광인', '어느 여인의 인생의 스물네 시간', '감정의 혼란'은 욕망과 죄책감, 성장과 집착, 열정과 혼란 같은 내면의 진폭을 정교하게 그려낸다. 심리소설의 정수라 불리는 이 작품들은 츠바이크 특유의 섬세한 문장과 흡인력 있는 서사로 인간 본성의 심연을 파고든다. <문학동네·1만9000원>

▲**재테크농부의 올라وند 투자**(재테크 농부 지음)=네이버 프리미엄 구독자 1위 콘텐츠 '재테크농부'의 실전 투자 전략을 정리했다. 초보 시절의 실패와 미국 주식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기반한 '올라وند 투자법'을 제안한다. 분산투자, 리밸런싱, 배당 재투자 등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전략이 담겼다. <한국경제신문·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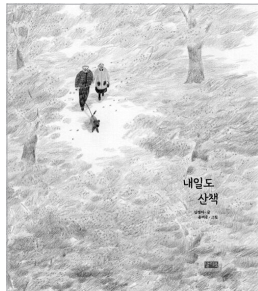
▲**내가 죽는 날**(애니타 해닉 지음, 신소희 옮김)=미국 문화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이 수년간 조력 사망 현장을 동행하며 기록한 탐사 르포. 존엄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따라가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는지 세심하게 그려낸다. 죽음을 둘러싼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



며,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수오서재·2만원>

▲**나의 완벽한 무인도**(박해수 지음, 영서 그림)=도시에서 벗어나 무인도에 정착한 주인공 지안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그린 자연적 소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섬의 풍경과 바다, 그리고 고요한 노동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단단해지는 몸과 마음을 담아냈다.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 속에서 자긍심이란 결국 가장 '나다운 순간'을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탁스토리·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대담하고 함께 과학**(김성환 지음, 장미란 옮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왜 몸이 붓는 느낌이 들까?' 호기심 많은 강아지 남매 '깜돌이'와 '뽕주'와 함께 일상 속 궁금증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풍선, 별, 간식통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중력, 전기, 상대성이론, 파동, 허수 같은 과학 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과학이 어렵고 낯선 어린이들을 위한 친근하고 유쾌한 입문서. <지노·1만8000원>

▲**내일도 산책**(심명자 지음, 윤여준 옮김)=떠돌이 사골개 건이는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뛰어노는 게 꿈이다. 우연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나 함께 지내며 가족이 되고, 소박한 꿈을 하나씩 이뤄간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떠나고, 슬픔에 빠진 건

이와 할머니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면 다시 산책길에 나서게 된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와 섬세한 색연필 그림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찰리북·1만6000원>

▲**멋대로 고든** 1일렉스 라티머 지음, 김선희 옮김)=매일같이 못된 짓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외면받던 거위 고든. 어느날 꼬마 돼지 앤서니가 겁 없이 다가와 꽃 한 송이를 건넨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고든은 혼란을 느끼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고든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든다. 우정과 믿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는지를 다정하게 그려냈다. <올리·1만3500원>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